朝鮮日報
第二夕刊
九日(木)
本紙朝夕刊十二面
編輯人 金 炯 元 發行人兼印刷人 方 應 謨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本社定期刊行物 朝光·少年·女性
朝鮮日報社發行

趙膏藥 (五十錢 二十錢)

"新世界建設"目標로 五個年戰爭을準備

히總統重大決意聲明

【문헨八日發同盟】히틀러總統은八日夜문헨市나치스黨蜂起記念祭에臨하여 再次獨逸의戰爭方針을 闡明하는 重要演說을하엿다 히틀러總統은 徹頭徹尾英國態度를 攻擊하여 『英國이自由解放을 戰爭目的으로써 揭揚하고잇스나 이는虛僞한 口實에不過하고 眞實은獨逸을무서워하고 나치스의赫赫한治績을 嫉視하여 이를打倒하려는것이다』라고 喝破하여 뒤이어 獨逸의 戰爭目的은 獨逸國民의 安全確保와公平한 分配가保障된 世界建設에 잇슴을强調한後 英國이 平和를欲求하지안는以上 獨逸로서도 戰爭을繼續할決意를굿게 하지안흘수업서서 이미괴링元帥에게 對하여 五個年間의 長期戰準備를 命하엿다고發表하엿다 히總統은 다시 蘇聯과의 提携를 强調하여 獨逸은 이미前番 大戰當時와가튼 獨逸이 아니다 獨逸은 絶對로 降服지 안는다 今番 大戰의 勝利者는 獨逸인것을 이에 確認할수 잇다고 結論하엿다

【문헨八日發同盟】나치스黨員의 문헨蜂起를 記念할 十六周年記念祭는 八日午後八時부터 나치스運動發祥의 歷史的會場인 문헨 뷸가·브로이·케라-에서 히틀러總統以下 多數의 古參黨員參列下에 盛大히 擧行되엇다 同夜 히틀러總統은 約一時間에 亘하여 重要演說을 行하엿는데 終始英政府의 態度를 攻擊하여 英國이 挑戰하면 獨逸은 三年이던 五年이던 이에 應할것이다 余는 이미 괴링元帥에 對하여 五年戰爭準備를 命하엿다고 强硬한 語調로 그 決意를 表明하엿다 히틀러總統은 英國의 宣戰以後도 依然和平希望을 버리지안코 英國에 對하여 極力 挑戰的言辭를 避한 模樣이나 이제 白、蘭兩國元首의 和平斡旋拒否에 依하여 英國의 强硬態度는 움지기기 어려운것임이 判明되엇스므로 이에對應하여 드디어 最後의決意를 굿게하고 强硬方針을 取하기로된것으로보인다 總統은 最初九日의 記念日에 헤스副總理로하여금 白蘭兩國의 和平提唱에 對應하는演說을 行케하여 獨逸의 和平的態度를 表明케할 豫定이엇는데 英國이 拒否的態度에나왓스므로 八日急遽 헤스副總理演說을 中止시키고 히總統自身이 문헨에出動하여 强硬方針을 闡明하게된것이다

確聞하건대同外相은國民議會開會前에 議員들에게對하여個人 談話로서 萬一의境遇 土耳其와 英佛艦隊에對하여 다다넬스海峽及 黑海使用을 制限하라는 蘇聯要求에 關하여는 今後도 拒否를 繼續한다고 確信하엿다고 한다

히總統記念演說 會場에爆破椿事

나치스高官死傷六十餘

【紐育八日發同盟】伯林으로부터의 情報에依하면 八日夜 나치스黨蜂起記念祭會場인 "뷸가·브로이·케라"에 爆破椿事가 일어나 나치스高官數名이 即死或은負傷을 하엿다고 傳하는데 이는아직 確報는아니요 伯林宣傳省當局도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고잇스나 이뉴-스를밧자 A·P伯林支局이 문헨市에 電話를한즉 伯林·문헨間電話도 故障狀態이엇다고 報道하고잇다 爆破椿事가 일어낫다고하는 時刻에는 히틀러總統은 이미 업섯스므로 總統의身邊에는 危險은업섯는것으로보인다

爆破椿事發表

【伯林八日發同盟】DNB通信社는 八日 문헨 뷸가·브로이·케라에서의爆破椿事에關하여 如左히 發表하엿다 八日夜九時卅五分 문헨에서의 나치스蜂起記念日 會場인 뷸가·브로이·케라에서 爆破事故가 勃發 即死者六名、負傷者六十餘名을내인 爆破理由와 그 原因은 아직不明한바 外國側陰謀에基한것으로 推測되고잇다 그리고 爆發은 히틀러總統이 이미同所를떠나 伯林으로向한後 發生한것이다

【伯林八日發同盟】DNB通信社는 如左히發表하엿다 八日午後九時三十五分히틀러總統이 演說을마치고 문헨 뷸가·브로이·케라로부터 退場코저할때 萬雷와가튼拍手裡에 退場코저할 즈음突然大音響과함께 爆發이된事件이잇섯다 爆發經過는外國側에서 企圖한것이라고 信憑된다

懸賞五十萬馬克(犯人逮捕者에)

【伯林八日發同盟】獨逸政府는八日夜문헨爆發事件을 外國側의使嗾에依한것이라하며 極히重視하고잇는바 八日深更 犯人逮捕者에게는 賞金으로 五十萬馬克을 提供할旨 發表하엿다

英佛土條約 土耳其批准

【앙카라八日發同盟】土耳其國民會議는 八日議場一致로 英佛兩國과의間에 締結된 英佛土相互援助條約을 批准하엿다 그런데 사라조글루外相은 同條約은『蘇聯과의友好關係를 留意하여作成하엿다』고 述하엿다

天皇陛下의御精勵

前後六時間演習을天覽

【御殿場電話同盟】恐懼하옵시게도 天皇陛下께옵서는 富士山麓의 近衛師團演習에 臨하여 八日午前八時十五分行在所御出門前後六時間에 亘한激戰을 天覽하옵신바 聖戰下御日常 御多端하옵신때에 이가치 軍事에 御精勵하옵시사 側近一同의 恐懼感激裡에 御豫定과가치 午後四時二十分 沼津驛御着還御하옵시엇다 陛下께옵서는御乘馬白雪에 乘御、裾野台를 御出發以來 飯田台 川林台 山地台 三浦台 松村台 御殿場等 裾野立所에 進御 그間二十粁나되는丘陵이起伏된 原野에 새로展開된 山川가튼한 道路를 어떤때는말을 빨리달리옵시와 御巡視하옵신다 蓮沼武官長以下 側近等一同은 內衣를 땀에적시면서 供奉하엿는데 恐懼하시옵게도 陛下께옵서는 前日來의 活躍에 몸이疲困한中에도 士氣가軒昂 땀과賊陣에外여서 勇戰奮鬪를繼續하고잇는 勇士들을 軫念하옵시어 그間 여러번 御乘馬部隊長의 奏上을 御聽取 戰鬪行動中의 將兵에게까지도 屢次御注目을하옵셧는데 山池台에서는 指揮官 李王少將殿下의 奏上을으시옵고 御晝餐도 御野立所天幕內에서 秩父宮殿下와 御同伴野戰食과도가튼 輕便한 御晝餐을 잡수옵셧는데 豫定하옵셧던 御休憩時間도 아끼시와 即時出御하옵시어 秩父宮殿下와戰爆을바라보옵시며 어떤때에는望遠鏡을보시옵고 親히이야기하옵시면서 御觀戰 다시 近衛幕僚等을부르옵시와 詳細히御下問하옵시고 御殿場에서는 御椅子도업시 終始熱心히 天覽하옵신바 最後에는 部隊도 多加한 가장激烈한 戰鬪를 天覽하옵신後 突然御演習中止의 御命令을 내리옵시엇다 그리고 近衛師團長이하 將兵에게 對하여 親히 御言葉를 내리옵셧다 그리고 沼津行在所에서는 다만恐懼感激할뿐이엇다

閑院總長宮殿下 雲仙에御一泊

【長崎電話同盟】內地御歸還途中의 閑院參謀總長宮殿下께옵서는 九日午前七時 御起床 雲仙의 秋色을 玩賞하시고 同地觀光호텔에서 御一泊 九日午前七時 御出發 諫早驛 同二時二十分 御着 同二時三十一分 司令 御乘車 同十一時 東京驛御着 宮城에 還幸하옵실 御豫定이시다

蘇勢力南下에對備

伊、빨칸工作活潑

異變發生時엔實力發動決意

【羅馬八日下條同盟特派員發】빨칸에對한 蘇聯의野心이 漸次露骨化함에 비추어 伊太利政府는 蘇聯勢力의 南下를 阻止하는同時에 빨칸에잇서서의 平和維持를爲하여 目下 全力을 다하여 부다페스트、소피아、아테네、부카레스트、베오그라드等地에서 目下盛히 外交交涉을 하고잇다고 傳하는데 伊太利는 爲先 第一段으로 유고슬라비아와의提携、第二段으로 匈牙利、유고슬라비아와의 三國提携、第三段으로 이에다 勃牙利를加하고 다시 羅馬尼亞까지 包含할方策을 硏究하고잇다는 觀測이 有力하다 蘇聯의 勃牙利侵柔策은 內面的으로 相當히 進行하고잇는 模樣으로 伊太利는 이를重視하고 過般蘇聯이 波蘭에 進入하엿슴과가튼 事變이 일어날 可能性도 잇스므로 伊太利는 萬一에 對備하기爲하여 빨칸前進基地인 알바니아의 兵力을增强하고잇서서 적어도 빨칸에異變이 發生하여 戰火를 相交하게될境遇에는 實力에 依하여 事態를 收拾하려는 堅固한決意를 가지고잇는것으로보인다

船籍移轉問題 米大統領裁斷注目

【華盛頓八日發同盟】米國船舶을 파나마國籍에 移管하는 問題는 루大統領도 헐長官도 同樣으로 이에 反對意見이라고 傳하고 잇는데 大統領은 하이드파크別邸에서 一日海事委員會에게 決定을 保留시킨것과 船籍移轉問題는 中立法과 關係가업다고말하여 船舶業者의 中立法에 對한反對를 緩和하는同時에 國防上의 見地로보아 移籍되는 船舶의長期 停船되는것을 防止하려는 理由에 依한것이라 一方船籍移管의 問題에 對하여는 審員會에도 賛否兩派가잇스므로 海事委員會로서는 루大統領이 明九日 華盛頓에歸還할기다려 決定을하려고하고 잇스나 이問題는 新中立法을政治問題化할 可能性이 多分으로 잇서 루大統領의 裁斷이 注目된다

(一面에 繼續하여) 여섯다 八日 記者團과의 會見에도 헐長官은 이問題에對하여 一切言明을 避하엿는데 매우不快한 模樣으로보엇다 헐長官은 海事委員會의 決定을 更시킬 權限은 업스나 루大統領은 自己가 시킬려고하면 自己의 權限으로 할수잇는바인데 大統領은中立法問題를 再燃시키지안는다고 寬大하게 보려는것으로 보이며 大統領이 가지고잇는 態度로 對處하는理由는 ...

蘇芬協定成立?

芬回訓案中心會談再開

【莫斯科八日發同盟】海軍根據地建設問題를包含한 蘇聯의 强硬要求에對하여 芬蘭政府가 昨七日閣議에서 決定한回訓案은 八日파시키뷔 芬蘭代表에게 到着된模樣이다 다만右回訓을 中心으로한 蘇芬會談은 明日이아니면 再開되지안을模樣으로 一部에서는 蘇芬兩國이 現在와가치 서로 大軍을國境附近에 集結하여두는것은 蘇聯과가치 資源이 豐富하지못한 芬蘭으로서는 經濟的破綻을 招來할結果가 된다는 點으로보아 結局蘇聯은 實力行使에는 依하지안코 蘇芬協定締結에 成功할것으로보인다

(一面에 繼續하여) 使孫科는 過般來巴里에서 活躍中이던바 八日巴里로부터 倫敦에到着하엿다 孫科今番의倫敦訪問은 全혀私的으로 叢書에郭泰祺駐英支那大使가 巴里를訪問한데對한 答禮라고 말하나 孫科特使는 八日 倫敦到着後 곳郭泰祺와同道 外務省에 할리팍스外相을 訪問하고 長時間동안 부탁는 會談을하엿는데 그는英政府에 對하야 어떤工作을 開始한것으로豫想된다

孫科突然倫敦訪問

白、蘭和平提唱

米國에別無反響

【華盛頓八日發同盟】白蘭兩國元首의 和平提議는 米國에도 一般의 注目을 끌고잇는바 米國政府는 아직 何等斡旋的態度를 表示하지안코잇다 八日午前八時 헐國務長官이 肯定한 兩國和平提議는 何人인지 當初부터 問題되지안코 잇스며 結局可能性이 對하여도 그리 期待되고잇지안타

米와事前諒解?

白、蘭元首와羅馬外交界觀測

和平提議

【羅馬八日發同盟】白、蘭兩國元首連名의 和平提議에 關하여 羅馬外交界에서는 그成功은 極히 어려울것을 豫想코 兩國 今番行動은 도리어 米國과의 어떠한 諒解下에 한打診工作이 아닐까하는見解를 가지고잇다 따라서 米十一日의 休戰記念日의 루즈벨트大統領演說이 어떤問題를 어떠케 取扱할것인가가 매우興味를

戰爭遂行目的을

쳄벌린首相又復强調乎

【倫敦八日發同盟】白耳義皇帝、和蘭女王의 和平提案에 關하여 쳄벌린首相은 八日下院에서 『目下慎重檢討中이나 只今이에關하여 何等言明을 할수업다』라고 말할뿐으로도 아직 英國政府의立場을 闡明하지안헛는데 쳄벌린首相은 九日倫敦市長就任式에臨하여 恒例演說을할豫定이다 쳄벌린首相은 이演說에서 英國이 戰爭을 遂行하는 眞正한目的을 거듭强調할것으로보여 政界에서는 매우이를 重視하고잇는터인데 和蘭의 和平提案에 關하여는 顧問이라고 看做한다고 通告하고 白耳義、和蘭兩國王의 提案은 英帝의 回答에압서 自治領諸政府의 意向도 듯지안흐면 안되고 또는 英國政府와도 協議中이므로 回答發送까지에는 아직數日이걸릴것으로보인다 그리고 獨逸側에서는 할리팍스外相이 七日夜에 한 放送演說로서 英國政府의 回答이라고 看做한다고 通告하여왓는데 英國外務省은 이를否定하여 如左히 言明하엿다 白耳義、和蘭和平提案은 外相演說의 一時間아페 發表되엇스나 할리팍스外相이 演說原稿를 作成할사음 이가든提案이 잇스리라고는 全然豫想하지안흣든것이 確實하다

上海海關護照制度

勵行을嚴重要求

【上海八日發同盟】維新政府에서는 叢書『銀行業紙幣輸送暫行規則』을布告하고 法幣輸出入에對하여 海關으로하여금 이를取締하여 蔣介石의金融攪亂工作을 防止하엿는데 最近도 非合法的으로 輸出入을 하는者가 마치엇으므로 그取締의 徹底를 期하기爲하여 이즘上海海關監督李建南氏에게 護照制度를 嚴重히 實施하라고 命하여왓다 그러므로李建南氏는 지난五日附로써 上海銀錢業主席에게 如左한 通告를 發하엿다 紙幣의 流通狀은 金融市場에影響이 極히重大함을 認定하고 海關監督은 維新政府의 命令을밧고 銀行業者

敵의糧抹押收

【新京八日發同盟】敵糧抹自動車로부터 糧抹을 押收한 神谷上等兵은 지난八月二十四日 山縣部隊 ○隊가『○陣地』를 占領中 敵의 重圍에빠저 連絡을 遮斷當하여 糧食도 缺乏하여 마침내 一日一食으로 奮戰하고잇섯는데 同二十七日 中隊指揮班의 南方四百米附近에서 交戰中인 飯田部隊로부터 手榴彈의 補給要求를 밧자 同隊神谷南次上等兵(名古屋市千種區出身)은率先 그補給을申請하여手榴彈十發을携行하고 敵砲彈雨飛하는中으로沈着하게 그任務를다하고 다시同上等兵은 右飯田小隊의 肉薄攻擊에 依하여 破壞된 敵糧抹自動車를 發見하자 敵의 狙擊集團中을 勇敢하게 前進하여 同自動車로부터 糧抹과等多數를 押收하여 隊長以下戰友에 分配하고 士氣를 振興하엿다 同上等兵의 이가튼 犧牲的精神의 發露는 잘○○隊의 戰鬪力發揮에 貢獻한바가만하엿다

東畜解散總會

【朝鮮畜産】에 買收應하기로 決定된東洋畜産에서는 九日午前十一時부터 東拓內同社에서 解散總會를 開催하고 國策에 順應하여 解散하기로 決定하엿는데 同社의 買收價格은 旣報한바와 가티 約三十萬

朝鮮親族法上劃期

內地人式인氏設定과 南總督談

歷史的芳談에 依하면 朝鮮은 太古의所謂『根國』으로생각되는 데 大和民族과朝鮮民族과는 同祖同根으로 一串不斷의血緣的聯繫를가지고잇다 그리고 兩民族은 地理的環境이 相異한때문에 自然風俗文物이 相異하게되엇지만 併合以來 一視同仁의御仁政에依하여 內鮮이融和統合하여 本來의 一體形態에還元하려고하고잇다 더욱이今次事變을契機로하여 半島民衆이 帝國의堅持하는 確乎不動의大陸政策에잇서서 共同의 理想、共同의使命、共同의運命을 感得하고 皇國臣民으로서의國民意識에 불타 참으로 內鮮一體가되려는 思想動向과 生活態度와를 深化進展하여 온 바이다 이러하여 皇國臣民으로서의 信念과 矜持와를 抱懷한半島人의 一部에서 法律上內地人式의 氏를稱呼하려는 希望을 가진者가 생기게된것은 벌써부터 余의熟知하는바이 엇섯는데 同祖同根의 內鮮兩民族이 渾然一體가되려는이때에 잇서서 個人의稱呼를 同一形式으로하려는 要望이 擴頭된것은 實과 相表裏하여形에잇서서도 內鮮一體의 具現이 되는 所以이다 今般朝鮮民事令이 改正되어 朝鮮人의 氏에 關하여 內地人式의 姓이 設定되어 오는것은 이와가튼 內鮮一體의 具現을 爲하여 한걸음 前進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內容을 보면 半島人의 家族法上 姓 以外에 內地人式의 氏를 稱呼할수잇는 途를 開하엿다 이번 朝鮮民事令이 改正되어 其內容은 親族法의 諸點에 亘하엿는데 其中 半島人의 家族 法律上 內地人式의 『氏』를稱呼할수잇는 方途를 開拓한點은 改正의重要하여 內鮮一體의 顯에 따라 親族法上에잇서서의 劃期的改正이라고할수잇다

一體內部精神의 充實緊張이充分하다면 形外的如何는 敢히 이를 不問할것으로도 생각되나 內鮮의 習慣、傳統의顯著、緣形의境地도 其步一步는 五箇七箇을 來하는 內鮮의 吉行으로부터 始作되는 것으로 古來整心의第一義的은 먼저 整形에잇다고까지도한다 그러므로整心에미치는形의影響은 實로重大한것이라고생각한다 本令의改正은 말할것도업시 半島民衆에게 內地人式『氏』의設定을 强制하는 性質의것이아니요 內地人式의『氏』를 稱呼할수잇는方途를 開拓한것인데 半島人이 內地人式의氏를 稱呼하는것은 그다지 새로운問題는아니다 即 往時內地에 渡航한多數의 半島人이 이미二千年의 歷史를 가지고 잇는것은『新撰姓氏錄』에 歷歷히 記錄되엇스며 桓武天皇의 御代勅命을奉撰한『新撰姓氏錄』의記載에 徵하여도明瞭한바로 今日判然其多數의 氏를 指稱할수잇는 바이다 그리고 內地人式의 氏를稱呼한 이들 半島人은 大和民族에 同化融合하여 오늘날까지도 半島人가튼 風習을 傳承하지안흔 程度로 皇國臣民化하여잇는狀態이다 그러므로 內鮮一體의 理想으로할 하면 今半島民衆이 近近將來에 往時의渡航半島人과가치 形容相伊하여 皇國臣民化할날의 到來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생각건대 同法의 領域에잇서서의 內鮮一體의具現에 對하여는 (一)氏名의共通 (二)內鮮通婚 (三)內鮮緣組의三項目을 들수잇는데 『名』에對하여는 昭和十二年以來 半島人도 內地人과同樣『名』을부칠수잇게되어잇고 內鮮通婚이 逐年激增하여 半島人이內地人의養子가되는數도 年年遞增하고잇는것은 顯著한事實로 이번의 朝鮮民事令改正에依하여 前述한바와가치 半島人도 內地人式의 氏를 稱하게되고 內鮮一體의 具現이 되게되엇다 그러므로 前述한三項目이 全部實現을보게되어 이에 同法上에잇서서의 內鮮一體具現의途는 實로 完全히開拓된셈이다 我半島民衆의福祉를爲하여 實로欣快하는바이다

制令第十九號

朝鮮民事令中 如左히改正함

第十一條第一項中 但下에『氏』를『認知』下에『裁判上의離婚、婿養子緣組의境遇에 婚姻又는緣組가無效인境遇又는 取消된때의緣組又는婚姻의取消』를加하고 同條에 左記一項을加함

氏는 戶主(法定代理人이 잇슬 時는 法定代理人)가 此를 定함

第十一條의二를 第十一條의三으로하고 以下第十一條의 八까지 順次一條식式 繰下함

第十一條의二 朝鮮人의 養子緣組에잇서서 養子는 養親과 同姓임을 要치안는다 但死後養子의境遇에는 此限에不在함

婿養子緣組는 養子緣組屆出과 同時에 婚姻屆出을함에因하여 그效力을發生함

婿養子는 妻家에入함

婿養子離緣又는緣組取消에 因하여 그家를 나오는境遇에 妻家女의 直系卑屬은 其家를 나지안코 胎兒가 分娩된때는 其家에入함

第十一條의九를 第十一條의十으로하고 第十一條의 四及 第十一條의五를 削함

附則

本令施行의期日은 朝鮮總督이 此를定함

朝鮮人戶主(法定代理人이 잇는때는 法定代理人)는 本令施行後 六月以內에 新로 氏를定하고 此를 府尹又는 邑面長에 屆出할것을 要함

前項의 規定에 依한 屆出을 하지 안흘時는 本令施行時의 戶主의 姓을 氏로함 但一家를 創立치안흔 女戶主인境遇 又는 戶主相續人이 分明치안흔境遇에는 前男戶主의姓을 氏로함

制令第二十號

第一條 御歷代御諱又는御名은 이를 氏 又는名으로 使用함을 不得함 自己의姓 以外의姓은 氏로서 이를使用함을 不得함 但一家創立의境遇에는 此限에不在함

第二條 氏名은 이를變更함을 不得함 但正當한事由가잇는境遇에 朝鮮總督의 定한바에依하여 許可를바든때는 此限에不在함

附則

本令施行期日은 朝鮮總督이 此를定함

外國紙幣輸出入에 對한規定에依하여 一律로 嚴重取締를하여왓다 該規則稅務司의 注意가 잇섯슴에도 不拘하고 最近그實施가 若干 不確實한바가잇슴이 되므로 이러케하다가는 重慶政府의 金融攪亂의 手段에이바지할念慮가 잇기때문에 거듭同規則의 勵行을 强調하는바이다 今後支那銀行 外國銀行은모두 紙幣輸出入에 對하여는 海關의 許可를 바다 搬出入하기로하고 萬一許可업시 搬出한者를 發見한 境遇에는 即時이를 押留하여 政府의 指導를바더處分한다 그러므로 此旨를 徹底시키기 바란다

八面鋒

◇白耳義、和蘭兩元首 英獨佛三國에 和平調停 呼籲。

◇獨逸은 沈默、英國도 不明朗、佛國은 言明을 回避 二國의 豫定이므로 解散說이엇는 條十四、五國가량으로될 모양이라한다

◇戰爭은 希望치 안흐나 이미 時機가 느젓다는 말인가白、和兩國의 힘으로 調停能力이 업다 보는때문인가。

◇伊政府機關紙「데라리아」는 蘇聯을 "世界的 現行犯" 이라고까지 極言하여 侵略政策을 非難。

◇콤민테른聲明書記長은 米國의 中立은 欺瞞的이라고 揶揄。

◇남의 잘못을 말하기는 다쉬워도 제잘못을 말하는 사람은 드물것。

◇英獨兩國의 戰爭에 責任論이나 빨칸問題를 中心한 蘇伊의 軋轢과 사가 모다 臣의 舌을 올라하고 남을 극라함에 잇나니。

◇이 國家의 外交戰、宣傳戰이 東亞안 所以。

◇朝鮮의 民事令改正으로 한 집안은 하나姓으로 統一된다。

◇안해는 男便의 姓을、婿養子가 되면 그집姓을 따라야한다。

◇姉妹는 다 잇슬거나 朝鮮은 男性中心의 姓을 가지는 傳統을 가신거다。

◇시집을 가도 養婿로 가도 제姓을 쓰고、養子는 同姓에서만 할수잇던터라、一朝一夕에 이法이 잘 施行될런지!

廣告

胃腸健康
自力健康器
不用 藥도 手術도
日·英·獨·美 特許 發明 醫學博士 三木二郎先生 推奬
食慾이 늘고
便通이 고르며
밤은 安眠!
몸이 무럭무럭 번다
全國一流藥店에 有함
本舖 進呈【自力健康法】
東京神田 國民保健振興會

無代進呈 實物縮寫
大特價 一圓五十錢
大景品『朝鮮日報』愛讀者 記注文明 라하야『これは便利』辭典書 及 大宣傳을 爲하야 上揭한 特別大景品 一個씩 無代進呈
手紙 書時 これは便利だ
日本一 完備 便紙大寶典
便紙에 關한것은 무어던지 안다
特別景品付大特賣!!
組合한 式과新案辭典式의 長所를 採擇한 新時代에 適合한 新講義를 한 無比의 名著
三大附錄添付有함 第二別册附錄 字くづし辭典 出征兵士에게보내는 慰問手紙文集
體裁 總六寸 紙數 本 六百餘頁 總크로-스金文字入 豪華版特製美本箱入
東京·中野·小瀧町 振替東京一五一三五四番 積文堂特賣部 發行所

윤고약 尹膏藥
手術안코도 惡性腫毒과 骨髓에기피든 어려운 오래된瘡毒을잘낫게함
製造本舖 京城府長橋町八 慈祥局

小資本で成功する開業案內
警察官〈講義合部全書〉
鮮滿警察學會 京城府冊橋町九四
非常時立身出世을 希望하는 諸君!

各種ミシン卸專門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九九
萬稔ミシン商會
ミシン及部品分
電話本局②四五八三

外科 肛門病科
入院室全部獨房 暖房及浴房完全
京城府樂園町
醫學博士 朴昌薰

회충구제량약 岩崎大海堂 セメン菓子(珊篤尼湼菓子)
무서운 蛔虫卵을 驅除합시다! 蛔虫卵은 每日食用하는 野菜김치等에 附着하야 人體內에 드러가서 體內에 生長하면서 發熱 腹痛 嘔吐 貧血 夜泣等 其他 各種病의 原因이 됩니다 特히 小兒는 蛔虫에 걸리기 쉬운故로 每週日曜日에는 예전부터 信用잇고 잘듯는 印岩崎大海堂 세멘菓子를 服用시켜서 이무서운 蛔虫을 驅除하고 애기네를 健康하게 길러주십시요
類似品 잇스니 印에 注意
本舖 大阪天王寺 合名會社 岩崎大海堂

十日封切
男も!女も! 皆泣く!
藝術と人情の琴線に觸れる本年度最高位の名譜!
殘菊物語
日に增し好評!! 大盛況御禮!!
明治座

朝映
名匠의演出·名優의競演·半島映畫의最高峰!!
新開地
監督 李圭煥
朝映讓政府撮影所超特作
明治座·大陸劇場·仁川愛館同時封切에連日超記錄突破!
地方館 申込殺到
全鮮朝映封切館日定

朝鮮家族制度의 劃時期的인大轉換

改正民事令 一月부터實施

조선인도서양자(婿養子)제도를 인정하는 동시에 아해은남편의성(姓)을따르는법을 실시하며 또호주의성을 내지인식성 즉『나까무라』(中村)이니 『이또오』(伊藤)이라고 성을지어가지고 행세를할수잇는동시에 호적에도 그대로 인정하도록 조선민사령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총독부법무국에서는 지난삼월부터 약사개월동안 그개정법령안을 작성하야가지고 지난유월하순경에 법제국(法制局)에회부한후 총독부서강법무국사무관(西岡法務局事務官)과암도법무국사무관(岩島法務局事務官)이 동경에 출장하여 이래법제국에 그개정법령안의내용을극력해명하는한편 척무성(拓務省)과후생성(厚生省)에 절충을거듭하여오던중 지난칠일 각의(閣議)에서 정식으로결정되엇스므로 명십일제령(制令)제십구호로 공포하여 명년이월십일부터 실시할것이다

"氏"는家號의總稱

內地式"氏"를朝鮮人도使用

朝鮮式姓도"氏"制可能

이법령의내용은 상당히복잡하나 그대개를소개하면다음과갓다 이법령을실시한후는 조선인호주는 반드시내지인과가치『씨』(氏)가잇서야만되는데 이『씨』는 내지인식으로 중촌(中村)으로정한다든지 이등(伊藤)으로 정하든지 법령실시후 육개월이내에 호적당국에 계출해야된다 만일 육개월이내에 계출이 업는경우에는 소관당국에서 직권으로써 전에가지고잇던성을『씨』로인정하여버린다 조선인이 내지식으로씨를가지고시프면 전에가지고잇던성이나 가족존이나 혼인이 등이라고할수잇다 가령김영출(金永出)이란사람이 중촌이란씨를 가지고싶다면『중촌김영출』(中村金永出)이라고하여 중촌은 씨가되는것이오 김영출은 성명이되는것이다 그런데 호주로서 내지식씨를 부치고시픈사람은법령실시후 육개월이내로 소관호적당국에 계출해야된다 만일계출이업는경우에는 전에가지고잇든성 즉김(金)혹은박(朴)성을 씨로 인정하게된다 즉『김영출』이는『김』은『씨』를 겸한 성이되고영출은 이름이되는것이다 민법상으로보면『씨』라고하는것은각각그집(家)의가문(家門)을통칭하는 법률상의칭인데 조선에서는 법률상『집』의존재가 인정되어잇슴에도 불구하고『집』의칭호가업섯다『성』(姓)은 남계(男系)의 혈속을표시하는칭호로서 『집』에부튼것이아니고 사람에게부튼것이다 따라서 가호(家號)인『씨』제도를 새로창설하게된것이다 그런데 어떠한경우를물론하고 어역대어휘(御歷代御諱)또는 어명(御名)은 성명으로사용하지는 못한다 그리고 도성명은변경하지못하는것이 원측인데 만일정당한 사유가잇는경우에는 조선총독의 허가를바더서 변경할수가잇다

死後養子에는 異姓婿養不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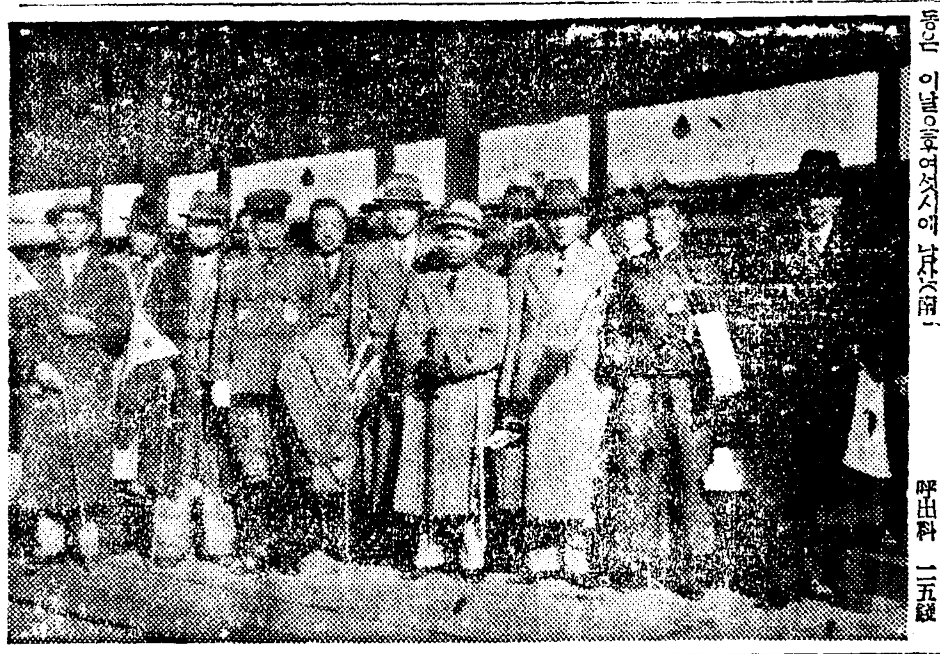
破養하면本姓에還元

서양자(婿養子)에대하여는 이번의개정되는 이법령에 의하여 처가로 들어가는법률상 양자로서 씨는 당연히 처가의 씨를 따르고 사위가 파양되어 그집을 떠나는 경우에는 출생한자녀는 전처가에 그대로두고 가는것이규정되어잇다 그런데 이성양자(異姓養子)라고 하는것은 종래조선의습관인 동성(同姓)양자이외에 딴성을가진사람을 양자로 드릴수잇는동시에 그 부자간이성을 인정하도록 규정되어잇다 그러나 사후양자(死後養子)는 이성양자를 허락하지안는다

健兒團指導員 府內神社巡禮

경성건아단(健兒團)에서는 국민정신 작흥주간의 마지막날인 오는십일일(토요일)을 기하여 동 ……

(비)소의교풍회합하여 전기신사를 차례로 참배한후 동아홉시경에 해산할예정이다



西水羅漁大津外二區 電話通話區域에編入

체신국에서는 함북 서수라(西水羅)—어대진(漁大津) 서수라—회안(會安) 개성(開城)—월정(月井)(강원도)의 세구역을 새로 전화통화구역에 편입하고 십일일부터 통화사무를 취급하기로되엇다 통화료금은 다음과갓다

▲西水羅—漁大津 一通話 八〇錢 呼出料 四〇錢

▲西水羅—會安 通話料 四〇錢 呼出料 四〇錢

▲開城—月井 通話料 五〇錢 呼出料 二五錢

婿養子、異姓養子及氏制度制定에對하여

宮元法務局長談

現在 朝鮮人의 親族相續에關하여서는 原則으로서 民法에依하지안코 在來의慣習을 따르고잇는데 慣習中에는 時代의進運에伴치안는것과 國家的見地에서 適從치못하게되는때가 잇스므로 法的生活의 合理性及 安全性을 確保키爲하여 慣習의 整序及成文化를 必要로함은 再言을 要치안는다 이것은 朝鮮人의 親族相續에關한 全般的成文化를 企圖하고 着着 其案을 準備하고잇지만 民法의 親族編及相續編의 改正이 二十餘年의 歲月을 지나고잇슴에도 不拘하고 아직確定案을 엇지못하엿슴에비추어도 알수잇는바와가치 其實現을 期할수업는것이다.

그런데 오래前부터 擁護된 婿養子制度의 實現에對한 要請은 近日 漸次 熾烈하게되어 特히 最近精神의心性에 透徹한 朝鮮人의一部에서는 熱烈히內地人式『氏』의設定을要望하는事가잇서 이들의 制度의 實現은 在滿全般的立法完成의 時에 遲延할수업는事情에 直面하여왓다 그래서 이번에 朝鮮民事令을 改正하여 親族相續에關한 全般的立法의一部로서 婿養子、氏及이와 連關係를가진 異姓養子及 裁判上의 離緣制度에對하여 規定을 設定한것이다 그 要旨는 다음과갓다

(一)婿養子

(가) 形式的要件

婿養子緣組는 養子緣組와 婚姻과를 結合한法律行爲이므로 同時에 兩者를 府尹又는 邑面長에 屆出하여 비로소 其效力을 發生한다(第十一條의 二第一項)

同時에 婚姻의 屆出을 하므로써 그效力을 發生한다) 婿養子가된後 養子와 家女간 婚姻한境遇는 所謂戶內婚姻으로서 婿養子가아니므로 後述하는「婚姻又는緣組가無效할때又는 取消된때의 緣組又는婚姻의取消」에對하여왓다 그래서 이번에 規定의適用이업다

(나) 實質的要件

婿養子緣組의 實質的要件은 構成하는 一要素即養子緣組와 婚姻으로分析하여 考察할必要가잇다 本改正에서는 後述하는바와가치 從來의養子緣組의要件인 同姓同本의 原則을 緩和하여 一項養子는異姓이라도 (第十一條의 二第一項)에對하여 在來의 慣習에 따르게된다

(다) 效力

(1) 男側의入籍

婿養子는 妻의家에 들어간다 그래서 婿養子緣組의 屆出이 有效한 때에 妻의家에 들어갈것으로 規定하엿다(第十一條의 一第二項) 婿養子는 妻의家에들어가 本令의 改正에서는 民法第七八八條 第二項과가치 妻의家에 들어갈것으로 規定하엿다

(2) 離緣又는 結緣의取消

婿養子는 妻의家에 들어가게되므로 그집을떠나도 家女의直系卑屬은 其家를떠나지안코 胎兒가 出生하엿슬때는 그집에 들어간다고 規定되어잇다

(3) 婿養子緣組의境遇에 婚姻又는 緣組가無效할때 又는 取消된때의 緣組又는 婚姻의取消

婿養子緣組에 있어서는 緣組와婚姻은 一連託生의 運命이를 必要가잇스므로 婚姻又는 緣組가 無效할때 又는取消될때는 그타緣組又는 婚姻을 取消할수가 잇는것으로 規定하엿다

(三)異姓養子

朝鮮의 慣習에依하면 同姓同本이아니면 養子가 될수 업다 朝鮮人의養子制度의 實現을 爲하여서는 이兩立할수업는 原則의 어느것을 揚棄치안코서는 안되나니 그래서 本改正에서 異姓이라고하더라도 養子가될수잇다고 定한것이다(第十一條의二第一項) 朝鮮人의養子緣組에잇서서 養子는 養親과姓을 가치할必要가 업는것이다 元來朝鮮의 養子制度는 奉祀

(三)氏

(가) 氏의本質

民法에이르는『氏』는 家의稱號이다 朝鮮에서는 法律上의 名稱이 업섯던 家의 稱號이다 朝鮮에서는 法律上家의存在가 認定되어 잇음에도 不拘하고家의稱號가 업섯다『姓』은 男系의血族을 表示하는稱號로서 家의稱號가 아니라 사람에게 부튼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屬하는家가 變하더라도 비유컨대 婚姻하여 甲

家로부터 乙家에 들어가더라도 姓은變치안는다 元來社會構成의 單位인家에 이를 表徵하는 稱號가 업는것은 國家에 國名이 업는것과 同一하다 그러나 異姓養子가 認定되면 相續人의姓은 다르게되어 相續의 前後에依하여 家名이 動搖된다 그래서 本改正에서는 各家에 그稱號인『氏』를 設定하여 戶主及家族은 其『氏』를 稱할것으로 規定하엿다(第十一條의二第一項)

(나) 氏의設定

『氏』는 戶主又는 戶主權을 行하는者(所謂法定代理人)이 定하는바 그戶主는 戶主의 親族又는 戶主權을 行하는者(法定代理人)이 定한다 本令施行後 六月以內에 屆出하여야 한다 이期間內에 屆出하지안는 境遇에는 前戶主의 姓을써『氏』로한다

(다) 氏의設定에關한制限

朝鮮人의 氏名에 關하여 內地人式『氏』를 設定할수잇는것은 勿論이나 …… 歷代御諱 御名은 勿論이오 其他不穩當한 것은 …… 使用할수업다 (朝鮮人의 氏名變更에 關한 件)

(라) 氏名의變更

氏及名은 變更치못하는것이 原則이나 正當한 事由가잇는境遇에는 法院의 許可를 바더 變更할수 잇다(同令第一項) 그리고 그手續에 對한 法令은

汽車보다 느린電報

電報는輻湊人員은不足

都市間의連絡도倍前遲延

방금 교통기관의 번잡다망을 시각이느저지는것이 한창논의되어 일반의 비난을 밧고잇는이때 교통기관보다도 한층더 신속할것이 절대조건인 전보가 대륙기분의『만만디』유행병에 나 걸린듯 배달시간이 엄청나게 지연되어서 일반의 불편이 여간 크지안다

종전에는 아무리 뭐거터라도 조선내의 도회지면은 두세시간안에 배달되던 전보가 요즘에는 시국관계로 종래에 비하여 이삼배이상이나 시간이 걸리는 형편이다 ……

小運送業令의實施로

運送力强化

鐵道局의偏僻된取扱도消滅

조선소운송업계를 통제할『조선소운송업령』은 드디어오는십일부터 시행되게되엇는데 이번령이 시행됨에따라 종래에 절박하던 운송업계도 당당한 신용을 밧고 영업을하여가게될터이다 그러려고 철도국의공인 운송점은 조선소운송협회에서는 최근 부내의 몃군데 회사에대하여 화차배정을 ……

木炭饑饉은解消

今月中旬中엔京城에多量入荷

ツカタニのマフラー

竹添町小火

刑事課解剖祭

十八日博文寺서

경기도형사과에서는 오는십일오후두시부터 박문사(博文寺)에서 경기도형사과에서는 소화구년 ……

京平蹴球는明日

技術을超越한 精神力의爭覇!

平壤三選手隊進의最後戰

蹴球界掉尾의豪華版

朝鮮蹴球協會主催의 第二回二十年前까지는 延長되여온 京平對抗戰은 이웃고 明十日午後二時半부터 京城運動場에서 ……

亞細亞防共懇談會代表入京

동경과 대만(臺灣)에서의 간담회를 마치고 십삼일신경(新京)에서의 간담회에 출석하는 아세아방공간담회(亞細亞防共懇談會)일행은 신경가는도중 구일 오후한시사십오분경성역착 『아까쓰끼』로 경성이들렷는데 일행은 몽고(蒙古)연합자치정부대표 …… 표 비률빈대표 일본대표등이십명이다 ……

스파르타籠球隊歸京

廣告

오늘의 라디오

第二放送 ▲午後六時(成) 노래와이야기大會 ▲六時三〇分 講演 ▲八時 獨唱과 二重唱 ▲八時三〇分 (平)映畵小說 ▲九時 音律

어떤 證書·願屆라도 술술 쓰게된다

戶籍、寄留、兵事、營業、出版、納稅事項、民事刑事訴訟、人事訴訟手續其他 一切의證書願屆申請、申立書類와書式의 大集錄으로 이번東京中野區小瀧町一東京出版社에서『代書人入らず止しき書き方』『日常百般願屆證書』의二冊을 發行하엿다 이것이야말로 一切의證書와書式을 몰으는것으로 貸借、賣買、讓渡、抵當、登記、許願、買賣物件、四六判上製定價一圓인것을 今目下特價中二冊에一圓二十錢으로 頒布하니希望者는前記東京出版社에 申込하면 代金은 書本到着後本가하다고

淋治特効劑 G-U-サイド ギユ 99%の治癒率 効果

朝報案內 タイピスト生徒募集 就職斡旋 タイプ印刷 京城鍾路二丁目 中央タイピスト養成所

옷감자투리 特賣 京城黃金町四丁目

十二指腸丸 京城本町三丁目 坂井藥局

洋服 安價提供 京城府黃金町

富士ケーキ燒機 京城府本町

男女社員大募集 資格 自二十五歲至五十歲 中等學校二、三年程度以上 南鮮監督所

털만흔분 神奇로운기쁨

書籍目錄 無代進呈

女工募集 一、資格 小學校卒業程度 一、年齡 十六歲以上 金剛製菓所

梅毒淋毒胎毒에는 蓮珠瘡皮風에는 原因療法을하야 病뿌리를업새야납니다

原因療法으로第一血液을 淸血시키고 여러가지毒(梅毒、淋毒、酒毒、藥毒、膽毒)을 排泄시키며 五臟六腑를 補하는데 비로소 眞正한治療와 健康을確得할수잇습니다 在來治療法의缺陷은 單只其局部에만 作用할藥을使用하여왓슴으로 藥을使用하야도 어떠한 효과가 업섯는데 只今世上사람이 効力을보아 毎日가티 感謝狀을밧는 淸血排毒强壯劑『海草精』은 病의根源을쏙빼버리는힘이 强大하야 누구나 服用하는날로 其氣分을알수잇스며 効力에 驚嘆하게됩니다 海草精으로 速히 貴下의 痼疾을 곳치소서 藥價는 一個月分四圓九十錢 二個月分九圓三十錢 送料三十六錢 先金注文에는 送料弊所負擔하야 精密히製藥하야 速送합니다 京城府鍾路六丁目二六七番地 ホルモン醫化學研究所로 注文하시는분에 仔細한 病理와治療方法의冊子를 無料添送

食欲素 わかもと

文房具 事務用品 東光堂文具卸部 京城府齋洞四街 電光③370番

最新强力 鎭痛·鎭靜·鎭咳·麻醉劑 ネオモヒナール 春信藥業社

建築報國 建築資金貸付 東京建物株式會社

最新流行 ウーステツト背廣三ツ揃服 大衆向スコツチ背廣三ツ揃服 米國製直輸入品!! 中古米國製中折帽子 名古屋市東區清水町局前 卸問屋 松山合名會社

最新流行 高級背廣服と詰衿服

矢十字葡萄酒 美味榮養 經濟飮料 絶對防腐 品質保證

アミノサン도매 丸星商會

概說 新文學史 (三四)

林 和

第二章

第二節 精神的準備

雜誌 (續)

『夜雷』의 發行主旨는 創刊號所載論說을보면 明白하다 『長夜는 難明하고 惡夢은 …

倀哉ᄒᆞ긔 人皆斷然降ᄒᆞ야 揭然同化ᄒᆞ며 綠化局ᄒᆞ니 均是夢中이로긔 夢各不同이라 朱門貴胄이 威勢赫赫者도 有ᄒᆞ며 多積資財者ᄒᆞ야 富豪一時者도 有ᄒᆞ며 貧賤夢魘으로 不堪其苦者도 有ᄒᆞ리니 方其夢者에야 誰不知是眞是假컨ᄂᆞᆫ 況知其有身乎아 旣不知其有身커든 況知其有家有國乎아 于斯時에 忽然 有一聲雷가 霹靂烈叫ᄒᆞ야 直時睡人耳朶ᄒᆞ니 莫不翻然驚悟ᄒᆞ고 悚然起立ᄒᆞ야 瞠目凝思에 神魂飄蕩ᄒᆞ니 回念夢境에 猶若再生이오 但聞風雨雷霆ᄒᆞ고 驚愕醉醒而已라 人於是際에 亦各有思乎ㅣ저 愚時俯俗ᄒᆞ야 轉輾彷徨者도 有之矣오 悔過省愆ᄒᆞ야 勉若修者도 有之矣오 惜志願之未就ᄒᆞ야 歎歲月之不與者도 有之矣 從來有懷非僻邪慝之心者잇스리니 此其保留之便耳라 本報之所以取義於斯者也로라 嗚呼라 試觀我韓今日之現狀컨긔 此誠何等時오 其有能不醒夢者ㅣ設人乎아 其有能知其有身者乎아 其有能知其有家有國者乎아 彼富貴者도 只耽目前之樂ᄒᆞ야 爲不恤其他ᄒᆞ고 貧賤者는 只顧目前之變ᄒᆞ야 亦不恤其他ᄒᆞ니 夜深睡深에 誰其醒之오 玆將 寸管尺紙ᄒᆞ야 喚起我二千萬同胞ᄒᆞ야 雷代同有之責云爾로라』

이라하여 雜誌『夜雷』는 스스로 雷鳴과 같은 未開의 기픈 잠에 잠들고 잇는 人民을 覺醒시켜 文明으로 引導하는 先覺者의 任務를 自己의使命으로 하것이다.

이것은 當時의 綜合啓蒙雜誌로서 當然한 抱負라 아니할수 업다.

發行所를 『夜雷報館』이라고 하엿스나 그것이 單純한 雜誌社인지 或은 啓蒙를 目的으로 한 文化團體인지는 深究키 어려우나 推測컨대 兩者를 兼한 者로서 亦是 創刊號所載 夜雷報館 氏의 名의 聲明의 一節을 引하면 『夜雷』의 實際的 問題를 明白히 한바가 잇다

『今日之急務 莫先於發其未覺之知識 開其未開之思想 而已 竊欲古今東西之制度情形 而至於國政法律 歷史地理 … 於一篇之中 而廣究智識之綱領 於一般國民之前』

무엇인고 하니 『我韓三千里疆土非不廣也 二千萬民 非不大衆也 有能內修外學 … 齊驅於世界列强之間』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前進中에 잇는 人民과 國家만이 가질수 잇는 不斷의 信念이요 確固한 自信이다.

雜誌의 體裁는 다른 雜誌와 가치 金屬活字로 表紙는 當時에 잇서선 가장 高級으로 운 金文字印刷요 本文內容에 들어가도 生理學 사람의 全身骨格圖라는 精密한 木版圖를 使用햇고 歷史地理의 插話 金剛山風景을 全頁 木版畵를 써서 啓蒙雜誌로서의 面目의 用意를 썻다.

(寫眞은 雜誌夜雷表紙)

學芸

批評의問題

認識論과 批評精神 (四)

尹 圭 涉

따라서 이가튼 認識論으로서의 『크리티시즘』은 그의機構로써 그것이 어떤 傾向이엇든 體系와 精神을 必要로한다. 그 體系란 決코 圖式이아니라 組織力을 말함것이며 精神이란 動力의 『샤프트』를 일카른것이다.

그러나 『크리티시즘』은 어떠한 境遇를 勿論하고 하나의

感覺的 印象 에 對한 觀念的 價値的 反省이 言語또는 文字에 依하여 表現되는 事態를 早하게된다. 그것은 批評의 對象이 單純히 感性的인것 뿐만아니라 보다 價値的인 反省物이 所謂 例하자면 科學이나 哲學이라 할지라도 다름것이업다. 『크리티시즘』으로써 본다면 一切의 批評對象이 感受에서 始作된다. 다시말하면 批評은 어느것이나 印象批評으로 始作된다. 甚至於 科學的理論에 對해서도 必要한것은 一種의 感覺과 直覺이다(萬一 그가튼 感性理論을 無視한다면 그것은 批評이아니라 單純히 그對象에對한 理解에 그치는것일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感受에서 出發된 『크리티시즘』이 體系와 精神을갓는 認識論的機能을 온전히 다하게될제 그것은 科學的批評에까지 昇華되는것이다.

事實에잇서서 오늘의 認識論이란 人間의思想史의 要約이라고 하리만큼 노픈水準에 達하여잇다. 다시말하면 人間의 思想文化 即 文化諸世界의 組織的이며 原則的인 批評體系가 곳 認識論이다. 그런데 認識論에잇서서는 人間의 思想認識의 歷史的 社會的契機와 論理的契機가 從과橫을 이루고잇스며 『크리티시즘』은 그歷史的社會的契機와 論理的契機와의 同一이란 곳에 成立되는것이다.

그러면 여기에말한 認識論的機能과

批評精神 과는 어떠한關係아래에 잇는 것일까?

批評精神이 批評의 『에스프리』 即 批評의原理란것과 同意語인 것은 이미 敍上에서 말해온바이다. 그런데 認識論的機能은 一貫한批評의『메카니즘』體系 組織的인 方法을 內容으로하며 거기에서 機動的인 批評原則이 精鍊되는것이다.

그러므로 批評精神이란 結局에잇서서 認識論의 本質의 一部이라고 할수잇다.

여기에잇서서 우리는 다시금 問題를 批評精神의 맥落과 原理的方向의 展開도 흘럴 契機를 어덧다고 본다.

×

即 以上의 論述에 비추어 李源朝氏의 論點을 省察한다면 첫째 氏가 지난날의 評論은 第三의立場ㅣ 歷史的인 時代意識 또는 社會意識ㅣ에 依據하엿기 때문에 批評精神이 歷史的하엿스나 오늘은 그 第三의立場을 갓지못하기때문에 批評精神이 喪失되엇다는것은 곳 過去에잇서서는 認識의 社會的(歷史的)契機와 論理的契機가 同一하엿에 批評이 成立되엇스나 오늘은 그契機가 合一치못하고잇다는것을 일카른것일것이다.

그러나 大體로 『第三의立場』이란 決코 氏가 말한것과 가치 輿論 또는

時代意識 (社會意識)만이 아니라 批評감당할수잇는것에 잇서서는 藝術諸『장르』間은 勿論 社會 風俗 其他 文化諸領域間의 認識論的 處理와함께 同時代의 時代精神의 內面的關聯을 探究하므로써 文化諸世界의 統一的인 原則的인 批評體系를 理念하는 『크리티시즘』의 性格가운데 本是 內在되어잇는것이다. 다시말하면 그 第三의立場이란 認識에잇서서의 論理的契機와 社會的(歷史的)契機가 合一하여 批評이 成立되는데잇서서 제절로 부터오는것이다.

世界의귀

萬國博出品美術

當分間米國에保管

【紐育發同盟通信】當地萬國博에는 世界各國에서 거의門外不出이라고하던 貴重한美術品이 出品되엇는데 그中에는 美術品中 巴里『루-불』博物館, 倫敦國立美術館『암스테르담』『리직스』博物館으로부터온 數出品은 이번歐洲大動亂때문에 無期로 米國에 마껴두기로 決定되엇다 卽 이세美術品은 現在歐洲의危險에 晒하고 또 이美術品들을 歐洲로도로부터 보내는 大西洋上의 運搬이 安全하지못한 때문이다.

그 結果 지금까지 古典美術의 傑作이 업던 米國에 總額一百五十萬弗이라는 貴重한 그림이적어도 當分間은 남어잇게되어 美術을 愛好하는 米國人은 아주기뻐한다 그中에는 『와토-』의 『巴里의審判』이며 『호가-쓰』의 『그라함의 아들들』其他傑作이 잇다 이保管費用과 保險料는 莫大한 額數에 達하는데 아마도 民間의 寄附모집 모양이나 米國博物館에 保管해두고 定期的으로 一般에게 展覽시키라 한다.

蠹魚雜錄

獵書餘談 ⑥

洪 淳 赫

大正十四年 六月末。 去來잇는 東京本鄕 玉英堂書店이를렷다가 막 製本所에 보내려고내어잇는 中에잇는 第一卷ㅣ第十三卷을 뜻밧게 發見하고 東洋協會調査報告 一冊을 아울러 一金百二十圓에 사기로約束하고 온 나로서는大膽도하엿거니와 運도조햇섯다。 第二學期金을당기어 가저오고 그달 舊宿舍費其他를 긁어모아 支拂하기 까지에는 모든일이 順調로웟섯다 그러나 第三學期金으로 第一學期分을 納入하고 一月某日까지 第三學期金을 納入하지 안흐면 學年末 進級試驗을 不許한다는 揭示를 보고는 가슴이 걱정스럽지 안흘수업섯다 一面識잇는 L商曆本舖 K社長에게 速達로 學期金 補助를 懇願하고 翌日午前六時까지에 그의 自宅을 當到하여 벌써 工場에 出勤하엿다는 下人의 말을 들엇슬적의 落心하엿던것이 익고 그의夫人이 뒤쫓차나와서 품속에서 종이에 싼것을내어주면서『主人이 바빠서 失禮한다고 하면서 이것을오시면 傳하여달라고 하엿습니다』하고 感激한 態度로 돈을 줄때에의 그기쁨 눈물이 흐르려는 것을 겨우 참고 고맙습니다고 謝禮하고 門을 나와 싼것을 떠보니 意外에 學期金을 支拂하고도 남게되어 途中어느 書店에 들러 胡適文存을 삿섯다。 東洋學報를 읽을제마다 아니 바라다 볼제마다 K氏에게 對한感謝한생각을 禁치 못한다 成東 卒業할제 인사하러 갓더니 그도 기뻐하면서 祝賀로 洋服一襲지어 주것을 十餘年을 입엇고 그만 해어져 不得已 夜間服 作業服으로 입을때마다 그의 謙遜한 大人的 人格을 思慕하여 마지 안는다。

八、競爭讓步

나보다 W大學에 一年 압서 入學한 한哥 先輩가잇섯다。 가튼科가튼寄宿舍에잇서 그에게만흔 指導와 敎示를바다다。 그러나 冊 사는데에는 間或 競爭이 不無하엿다。 내가 展覽會에 가느다고 새벽 五六時頃에 가닥히 起床하여 장지문열고 나와서 신을 신느라면 어느틈엔가 그도 따라나섯다。 흙이 가튼册을 쥐고서로 사려고 하는젓도 잇스므로 할수잇는대로 衝突을 避하지만 그에게 두번 讓步치 안흐면 안될 書冊이잇섯다。 그하나는 그後 京城에서 가튼갑슬로 入手하엿지만 現京城帝大敎授 鳥山喜一氏의 卒業論文인 渤海史考만은 도무지 살수가 업섯다。 恩師 市村博士의 勸誘도 잇섯지만 그가삭고 내가 못삿다는 點에서 늘 이저지지 안흐엿다 年前 鳥山敎授가 咸興에 卒業生 就職斡旋次 와슬적에殘部가 잇거는 一冊 讓渡하여 달다고 배상쇠에게交涉하엿스나 自己에게도 한卷 박게업다는 對答이엇섯다。 그대신城大山貝物로 非賣品인것을 보내주어 感謝이 바든일이 잇섯다。 그後 東京서 온 古本目錄에 依하여 사기는 삿다 그러나 勿論하다 當時 一圓五十錢이 〇氏에게 讓步한것이 五倍인 高價로 겨우 入手함이랴。

孫子講義 (十八)

李 昇 圭

形便 (一)

形篇曰形은 兩軍攻守의 形이니 形軍中에숨진속敵人이推測치못하고 外에보인즉 敵人이 乘隙하여 와서치는니라

王晳이曰 用兵하는者는 能히 그形을變化하여 敵을因하여써 勝을制하나니라

孫子ㅣ曰昔之善戰者는先爲不可勝하여 以待敵之可勝이니라

(註) 張預ㅣ曰 先爲不可勝은 知己오 以待敵之可勝은 知彼니라

(通解) 孫子ㅣ가로대 예적에 싸홈을 잘하는者는 먼저可히 이기지못할것을하여서 써敵의 可히이길것을 기다리는니라

不可勝은在己하고可勝은在敵이니라

(通解) 可히勝치못하게함은내게잇고 可히勝할것은 敵에잇나니라

故로善戰者는能爲不可勝이오

(註) 張預ㅣ曰 形을감추고 跡을숨기고 항상守備를 嚴하게하는것은 내게잇는故로 能히 敵으로하여금 勝치못하게하는니라

(通解) 故로善戰하는者는能히 敵이나를 勝치못하게하고

不能使敵必可勝이니라

(註) 張預ㅣ曰 만일敵의强弱의 形을 밝게나타나보이지 아니하면내가 어찌敵을 반드시이긴다하리오

(通解) 내가能히하여금 敵을 可히이기는것은 期必치못하는니라

故로曰勝을可知오

(註) 杜牧이曰 다만自己의힘이可히 敵을이기는것을 알것이오

(通解) 故로가로대 勝하는것을可히알것이오

而不可爲니

(註) 張預曰 敵이防備가잇스면즉 可히할수업다

(通解) 可히取케할수가업스니

不可勝者는守也오

(註) 敵의虛實을 알지못하거든 아직 지키느니라

(通解) 可히勝치못할者는 지키고

可勝者는攻也니라

(註) 杜牧이曰 敵이可勝함이形勢가잇슨즉 치지니라

(通解) 可히勝할者는 치지니라

守則不足이오攻則有餘니라

(註) 杜牧이曰 내가써지키는바는힘이不足함이오 내가써치는바는 힘이有餘함이니라

(通解) 守하는것은 不足한까닭이오 攻하는것은 有餘한까닭이니다

漢詩募集

崔東考選

題 霜菊

押 陽韻部

期限 十一月十五日 (消印有效)

新刊紹介

▲湖岩全集 第二卷 (文化風俗篇) 文一平先生遺稿 (內容) 史眼으로 본 朝鮮, 朝鮮文化에 對한 一考察, 世界文化史先驅, 文化的收穫, 李朝文化의 別頁, 史上에 나타난 藝術의 聚散, 藝術과 로맨스, 近代名作小說解, 李朝雲家外, 戰爭文學, 正音小史, 西曆輸入五十年, 朝鮮文化의 社會的地位, 茶故事, 담배考, 議時考 其他 發行所 京城府 太平通一丁目六一 朝鮮日報社出版部 振替京城五八七八番 定價一圓八十錢 送料二十二錢

=西行詩抄= 八院 (三)

白 石

차디찬 아침인데
妙香山行 乘合自動車는 텅하니 비어서
나이 어린 계집아이 하나가 오른다
옛말속가치 진진초록 새저고리를 입고
손잔등이 밧고랑처럼 몹시도 터젓다
계집아이는 慈城으로 간다고 하는데
慈城은 예서 三百五十里 妙香山 百五十里
妙香山 어디메서 삼촌이 산다고 한다
쌔하야케 얼은 自動車 유리창밧게
內地人 駐在所長가튼 어른과 어린아이
둘이 내임을 내다
계집아이는 운다 느끼며 운다
텅 비인 車안 한구석에서 어느 한사람도
눈을 씻는다
계집아이는 몃해고 內地人 駐在所長집에서
밥을 짓고 걸레를 치고 아이보개를 하면서
이러케 추운 아침에도 손이 꽁꽁 얼어서
찬물에 걸레를 첫슬것이다

深•秋•隨•想

老柿山莊記 (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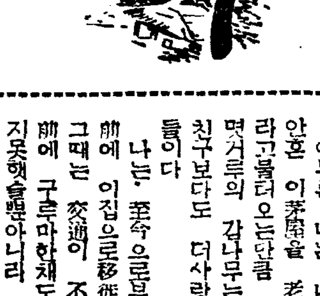
金 珖 燮

지금 내가 居하는 집을 老柿山莊이라 한것은 벌써 三四年前에 李君이 부처준 이름이다。 마당아페 한 七八十年은 묵은상싶은 늙은 감나무 二三株가 서잇는데 그것이 느즈름이되면 빼속빼족 이괴돗고 여름이면 퍼러타 못해 거의 시꺼머케 오집안에 그늘을 지워주고 하는것이 이집에사는 主人나로하여금 얼마나 마음을慰勞하여주는지 지금에 와서는 마치 감나무가 主人을 爲해 사는것이아니요 主人이 감나무를爲해 사는것쯤 된지라 李君이 일러 老柿舍라 命名해준것을 別로 새겨볼 餘裕도업시 그대로 행세를하고 마것이다。

하기는 그後時調파가치酒案을마주하고 이야기하던끄데 時調의말이 老柿山莊보다는 古柿山莊이라 함이 어떠하겟느냐 하여 暫間 내집이름을 다시한번 씹어보앗도엿기는하다。 그것은 푸른이끼끼인 늙은 감나무를老柿라 하기보다는 古柿라함이 唱으로보든지 글뜻의수는 要素性으로보든지 더낫지안켓느냐는 것이요 老柿라하면 어디인지모르게 좀俗되어 보일뿐아니라 젊은놈이 어쩌지 늙은체하는印象을 주는것가타서 熟味가 적다는것이다。 그러나 그때의나는 亦是 古字를부치는 骨董趣味보다는 老字의 純粹한맛이 행결내 好奇心을 이끌어 주고야 말앗던것이다。

첫째 나는 平素부터老境이란 境地를 퍽 尊敬한다 技藝上 術語를 쓰는老鍊이란 말도 내가 항상사랑해온 말이거니와 哲學者로치면 누구보다도 老子를 조하햇고 雅號로서도 나이만어지고 手法이 圓熟해진뒤라야 흔히老字를 부처서 假令 老行道人이라한다든지 梨園老人이라하는것을보면진실로 부러웟으로서도 比喩키어려운 悠長하고 豊富한맛을 느끼게된다。老人이自稱해 老라하는데는 조금도 어색해보이거나 誇張해보이는法이업고오히려至極히謙讓하며 充分한 餘裕를느끼게하는것이다。

그러나 그러타고 나는老柿山莊을무슨老境을 사랑한다하여바로 나自身이老境에든행세를하려함이아니요 그저러니 老字가 조코 또 老柿가잇고하므로 그러케이름을 부친데不過함이요 또 間或가다가는疑까지도老柿山人이라해보적도 잇섯다。



한번은 初對面하게된어느친구가 人事를 건든뒤에 놀라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나를 적어도 한 四五十은 넘은 사람으로 想像해왓다는것이다。그는 내가 老柿山人이란 號를 쓰는을 본때문은 아니요 집이름을 老柿山莊이라 한것을 間或 들은것만으로 그집主人은으레이 늙수그레한 사람이려니 하엿다는것이다。그말을 들는나는 처음에는 偶然하지안흘수 업섯다 그러나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러케 생각되엿음도 한일이라고 생각햇다。

아무튼 나는 내 변변치안흔 이茅屋을 老柿山莊이라고불러오는던큼 들어페선면거루의 감나무는 내어느친구보다도 더사랑하는나무들이다

나는 至今으로부터 五年前에 이집으로移住를 왓다 그때는 交通이 不便하여門前에 구루마한채도 들어오지못할뿐아니라 집뒤에는 꿩이랑 노루대랑이 감돌내려오구 하는것이어서 안해는 그런 茂州九天洞가튼데를무엇하자고 간느냐고 猛烈히 反對하는것이엇스나 나는그저 그런데때마다 암暗볼구따라만 와보우 하고 끌다시피데리고 온것인데 其實은 지실런지실로 내가 이집을 감나무 며거루를 사랑한때문이엇다

무슨花草 무슨樹木이조치안흔것이 업스리오마는 唯獨내가 감나무를 사랑하게되는것은 그놈의모습이 아무런造化가업는데도 不拘하고 古風스러워보이는때문이다 나무 껍질이 부드럽고 原始的인것도 한特徵이요、이피 圓滑하고 적잔흔것도 한特徵이며 꼬치 초롱가치 에쁜것이며 가지마다조흔열매가맷는것과 丹楓이구수하게드는것과 落葉이哀傷的으로 지는것과 여름에는 그늘이 그에더룹나위업고 겨울에는 까막까치로 하여금 詩興을돋우게하는것이며 그야말로 花朝와月夕에 감나무가끼어서 風流를도두지안는 곳이업스니 그어느것이 古風스러워보이지안는것이업스며 어느편으로보든지 감나무란 雅趣잇는 나무엔듯하지아니할수업슬것이다。

新春懸賞文藝募集

新人登龍의 絶好機

숨은天才여 力作을들고나오라!

★短篇小說　★戲曲　★씨나리오 (四百字原稿紙 各五十枚內外)
一等 各一百圓
二等 五十圓 (短篇小說)

★詩 (題自由長短隨意) …… 一等 十圓
★時調 (題서봄) …… 漢詩 (題、春祝 押眞韻部) …… 一等 十圓
★童話 (四百字原稿紙 四枚乃至十枚) …… 童謠 (題自由)
一等 …… 童話十圓 • 其他各五圓

★文藝評論 …… (四百字原稿紙三十枚內外) ……
題目 新世代의 精神 一等五十圓

應募期限 …… 十二月十日

審査委員
短篇小說—李泰俊•李箕永•李源朝
文藝評論—崔載瑞•朴致祐•林和•金起林•씨나리오—安夕影•徐光霽•詩—鄭芝溶•
時調—朴鍾和•漢詩—李昇圭•童謠—尹石重
戲曲•童話—李軒求•金永壽

注意 皮封에 新春文藝라쓰고、住所氏名을明記할것、作品은一切돌리지안흐며、入賞作品은本社에서所有함

朝鮮日報社學藝部

結核
ツベローゲン
醫學博士成田夬介先生創製
肋、腹膜炎特殊注射劑
1• 結核病變의進行을抑制하며自然治癒를促進함
2• 赤血球沈降速度를迅速히正常히復함
3• 新陳代謝機能을旺盛케하여抵抗力을强化하며心身을爽快케하여食慾倍加安眠을得함
4• 喀痰量減少•咳嗽의輕減•盜汗制止에特効함
5• 胸部痛•壓迫感을除去하며解熱鎭痛作用이有함
用法 每日或隔日一回一〇〇〇c.c.筋肉注射
包裝 一〇〇c 一〇管 三〇管 五〇管
植村製藥所 京城府新堂町

弱体強化 精力增進
國產ワント
ビオトニック (비오토니크)
참으로眞正한補藥
身體細胞의活力을根本으로 昂進하여
食 慾을倍加하며
身心의疲勞를 癒하여血液을 增殖함
身心의過勞 腺病體質 神經衰弱 結核諸症 病後恢復 스포-츠前後 貧血冷症 性的減退
成分 有機性アルゼン ビタミンADE グアヤコール マンガン ストリキーネ 次亞燐酸カルシウム 芳香性シロップ
用量 一日三回 五瓦宛
一五〇瓦 一圓五〇 三〇〇瓦 二圓八〇
有名藥店에서發賣함
植村製藥所 京城新堂町
鳥居商店 東京本町 大阪平野町

咽喉를護하라!
기침이나고、痰이늘고 發作이날것갓다!
輕한기츰에도 곳『ベルマン』을
舊來藥과달라조금도 中毒性이 업서서老人小兒에게도 安全하며또한鎭咳効果가 優秀한最新의咳止藥입니다
더욱이心臟保護의特色잇는故로 痰咳는勿論、特히 心臟衰弱의 危險이만흔 喘息、氣管支炎、百日咳等의慢性症에好評입니다
이一服이 괴로운기침과 發作을緩和하고 痰을업새서 呼吸을便케함
唐澤醫學博士推奬
價格 三十錢 五十錢 一圓 二圓
中毒性업는鎭咳劑
ベルマン
咳(せき)
主効 痰咳 喘息 百日咳 氣管支炎 感氣、肺炎 肺결核기침
丹平商會 大阪•東京
(各藥店에有함)
V—15

齒痛(はいた)에 곳 듯는
今治水(コンヂスイ)
못견디게、괴롭고 짜릿짜릿아푸고
조금도참을수업는齒痛입니다。
家庭에 今治水를 잇지마시고不時의齒痛에備置해주십시요
一滴二滴……바르면 곳듯고조곰도害가업는 安全한家庭藥입니다
主効 虫齒의痛症 齒根痛 神經痛 頭痛 으로오는齒痛
피셋트 齒痛附 二十五錢 三十五錢 六十錢
全國藥店에有함

朝鮮農業諸問題 ③

地主의役割

前述한바와가튼 高率小作料의存在가 可能하게한것은 朝鮮農業의 開發을 擔當한地主의힘에依한바 多大하다. 그地主의役割에言及하기前에 朝鮮의農業開發狀態를 回顧하여보면 朝鮮의農業開發이 飛躍的이엇섯다는것은 一般의周知하는바이나 由來朝鮮은 灌漑耕水施設이 不完全하여 自然의降雨에依하는 畓이大部分을占하고 收穫高는 全혀天候如何에左右되어 『三年一作』은 誇張이아니다. 이러한事態이엇다. 合併後優良品種의普及, 自給肥料의增施, 耕鋤改善等의 指導督勵하고 大正九年以降은 水利施設, 土地改良, 耕種方法의改善에도 重點을두어 增產計畫이樹立되엇다.

大正十五年以降에는 三十五萬町步의土地改良에依하여 約二百八十萬石, 施肥의 增加及耕種法의改良에依하여 五百三十六萬石, 合하여 約八百十六萬石의增產을 圖코자하엿다. 이計畫은 當局의積極的助成에依하여 着着進捗되엇다.

至今그進捗된實績을보면 大正九年에는 作付反別一,五五五千町步로서 收穫高는 一四,八八二千石 反當收穫〇,九五七石이던것이 昭和十二年에는 作付反別一,六三九千町步로서 收穫高는 二六,七九六千石, 反當收穫一,六三五石으로 躍進되엇다. 이와가튼 躍進은 當局의熱意에 依함은 勿論이엇지만 地主를動員하여 農事改良을實行시키는것이 『農業開發의捷徑』이라는 當局의意向에 應한者는 合併當時의 朝鮮經濟에 進出한東拓, 不二, 東山, 熊本, 藤井, 片倉等의 大資本을擁한 大土地會社로서, 이들이 開發에 實로重大한役割을 遂行하엿던것이다.

그러면 總督府當局은 왜地主를 特히外來의 地主를動員해 『農業開發의捷徑』으로하엿든가? 그하나는 이러한大資本이 朝鮮農業에 進出해온後에는 農業經營을 이미有利한企業으로 捕捉하엿던때문이다 그러므로彼等은 經濟的利益을 確保하며 大資本의힘에 依하여 開發의 進捗은 明確하엿던까닭이다 事實當局은 相當한補助金과 低利資金에依하여 그活動을 刺戟할수잇엇다. 그다음에 農村社會에잇서서의 小作關係가 가진 強制力에 着眼하엿던때문이다. 다른適當한 收入을어더서 家計를 維持할수업는 農村에잇서서는 小作關係는 簡單한 關係가아니라 小作地를 喪失하는것은 直接으로 生活의方途를 喪失시키는것이다 그러므로 地主의 命令은 거의 至上한것이며 이것에 反對할때에는 耕地의 取消를當하는것이다 이러한 經濟에 地主가 農事改良을 命하면 어떠한小作人이라고할지라도 順順히服從하지아니할수 업섯다. 그러므로 當局에서는 地主를動員하게되엿다 이러하여 朝鮮의農業開發은 內地의 農業에서는 볼수업는 會社에依한 開發이며 따라서 그것은 企業利潤을 追求할것은 當然한것이며 또 開發의明瞭한 當局의 大資本을誘導하기爲하여 經濟的利益의 確保로써하엿스니 開發의 結果는 當然히 豫知할수잇다 即經濟的利益을 意味하는 高率小作料가 設定되는것은 當然한것이다 此間의 事情은 前述한 高率小作料를 規定하는 定租가 農業開發이 가장 進步된 南朝鮮地方에잇서서 一般的으로 採用되어잇는 事實에依하여도 證明되는것이다.

即朝鮮에잇서서의 農業開發의 結果로서의 大土地所有와 農業經營은 他의 資本主義國에잇서서 封建的生產諸關係를 揚棄하고 發達한것이아니라 利潤을 追及하고자 도리어旣存한 封建的小作關係를 深化擴大하고 그우에 이에近代的契約關係를 假裝시킨것이다 이와가튼 地主의性格은 農場의 小作人에게까지 미처 種子의 品種決定及其分讓, 肥料의選別及其使用販賣等을 비롯하여 모든農業經營에 必要한것은 地主의 恣意에 依하여 決定되고 其他農業資金이 必要하면 貸付하고 端境期의 自家用食糧이 不足되면 이것亦是貸付하는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貸付이고 其以外의 아무것도아니다. 收穫期에 잇서서는 現物或은 現金으로써 利息과함께 回收되는것이다.

이것을 朝鮮開拓會社益山農場에잇는 所屬小作人三八戶를 對象으로한 昭和十三年의調查에依하여보면 이農場은 他에比하여 極히寬大하다고하는데도 小作料는 總收穫의 六割이나되며 이것과 諸貸付의返還으로서 地主의손에 들어가는것이 七割五分이고 小作人의收穫은 나머지의 二割五分인데 이것은 數量으로하여 一石에도 達치못한다 所謂農業開發은 依然히 苦境에서 헤매고잇다 高率의小作料와 高利의負債에 쏘끼어 自家의食糧조차 어려운 端境期는 野生의草根木皮에依하여 겨우糊口하는 『春窮民』은 李朝以來의 『春窮民』이다 『春窮民』은 日本版圖에編入된後도 多數의 朝鮮農民의 呼稱으로되어잇다.

開發을 擔當한地主의 役割이 이러하다고하면 開發이 進展되는同時에 農民의 窮乏은 對照的으로 深化되는것이다.

窮乏이 深化되면 『企業利潤』을 望하는것으로서의 地主의性格은 去益高利化하여진다 貧窮化해진 農民과의 賃貸借契約을 不安하다고하여 『定租制』를 採用하는 地主까지 散見되게되엇다.

그래서 官廳에 依하여 放任되던 地主의 役割을 制限하는것으로서 昭和九年에 朝鮮農地令의 制定을 보게된것이다. 同令의 眼目은 小作期間의 法定, 小作契約更新의 拒絶制限 等으로서 不備하나마 從來의 無制限한 小作關係에 制限을 設定한것이다 [illegible]

現在朝鮮農地令은 다시금 脚光을 浴하고잇다. 그러나 이와가튼 開發의 實情에 비추어 米穀政策의 再編成이 日程에 오르고잇는때에 開發政策下에 農民을 『春窮民』으로하지아니키를 希望하여마지안는다.

小運送業統制와 計算機關一元化

免許問題는既得權尊重이나 注目되는今後의推移

全鮮에一千五百餘個의小運送業者를 統制할 朝鮮小運送業令은 九日制令十八號로써 公布되어 明年一月十五日부터 實施케되엇는데 이小運送統制는 永年의懸案이 解決된것으로 이에依하여 今後影響되는點을 考察해보면 大體如左한것이다

一、本令公布前 即昭和十四年十一月九日以前에小運送業을 開始한者又는承繼人으로서 本令施行時即昭和十五年一月十五日에 現在小運送業을營爲하는者는 十五年一月十五日後 五個月以內에 그뜻을 屆出하는때는 免許바든것으로 看做한다

一、그러나 屆出을 한後라도 統制上必要하면 昭和十六年一月十四日以內에 免許의 有効期間을 指定하고 又는事業의 種別範圍를 制限할수잇다(그러므로 一段屆出해서 免許바든것으로 되더라도 이條項에依하여 制限을 밧게된다)

一、昭和十四年十一月九日以後로 小運送業을開始한者로서 昭和十五年一月十五日에 現在小運送業을 營爲하는者 又는承繼人은 昭和十五年一月十五日以後五個月以內에限하여 小運送業을할수잇다(이期間內에 免許申請을할때는 免許되기도하고 免許가 拒否되기도한다)

以上에依하여 原則的으로 現營業者는 免許되는것이나 免許바든者中에서 本令施行後 一年以內에 그實績其他를보아 相當히 整理淘汰되고 現在의 一千五百餘店의 小運送業者는 대단히 減少될것이다

業者의 免許關係는 以上과가타서 當場어떠한 影響은업슬것이나 이에잇서서 即時로 問題가되는것은 例의計算機關問題이다

即現在指定運送人側의 計算인 非合同運送人의 計算機關으로 丸計(鮮滿運輸計算會社)가잇는데 이미小運送業이 統制되는 以上 計算機關도 一元化할것이 必然의勢인바

一、朝運에서는 丸計所屬運送業者를 朝運計算에 加盟토록 勸誘코잇는一方

一、丸計側에서는 計算機關一元化에는 反對하는者아니나 一元機關으로서는 朝運의計算으로하지말고 朝運으로부터 計算을分離하고 丸計와合처서 새로운計算機關을 만들기를 主張코잇다

이에對하여 監督官廳인 鐵道局의方針이 어떠한지는 速斷을 不許하거니와 丸計는 지금官役間의軋轢, 告訴事件等으로 그陣營이 堅固치못하므로 計算機關一元化問題에잇서서도 對策樹立에 困難을感코잇서 今後推移가 注目된다

十年前에햇드면 河合朝運副社長談

十年前 運合成立當時 非合同業者는 不過三百店이엇스니 그때에 免許制를 斷行햇드면 朝鮮은 이러케 되지아니하엿슬것이다 다시 小運送統制가 完成되엇슬것을 다시 一千五百店으로 新店이續出된 今日에야 免許制를實行케된것은 넘우나 느진感이 不無하다 그러나 이로써 永年의懸案이解決된것은 業者를爲하여 國家를爲하여 慶賀한다 朝運으로서는 實力잇고堅實한 非合同業者와 握手指導하여 當局이 期하는 小運送統制의 實效를 擧揚토록 努力하겟다 計算機關一本은 當然實行될 것으로 計算機關이 分立되어서는 統制의 目的을 達成할수업다

新計算機關主張 姜丸計副社長談

一千五百店의 非合同運送業者의 計算機關인 丸計는 計算機關을 一元化하는데는 反對치안는다 그러나 朝運計算에 統一한다는것에는 反對이다 內地와가치 現業者가아닌 純然한計算機關을 새로만들어야 할것이다 그方法으로서는 朝運에서 計算部門을 分離해서 丸計와 合처서 新計算機關을 만드는것이 當然한일로 期必코 目的達成에 邁進코자한다

朝鮮小運送業令

九日制令으로公布 明年一月十五日부터實施

朝鮮小運送業令은 今九日制令第十八號로 發布되어 昭和十五年一月十五日부터 施行키로되엇는데 그全文은如左하다

朝鮮小運送業令

第一條 小運送에關한 事業에關해서는 本令에規定한것을 除한外에는 小運送業法에 依함 但同法第十二條第二項及第三項의規定은 此限에 不在함 小運送業法中 主務大臣이라고한것은 朝鮮總督으로함 但戰時又는 事變에際하여 軍事輸送上 必要가잇는 境遇에잇서서 軍需品의 輸送에 關한 優先扱 其他特別處理에 對하여는 小運送業法第四條의規定에 依하여 하는命令에 關해서는 朝鮮總督又는 勅令의定한 行政官廳으로함

小運送業法第十一條中 鐵道營業法이라고한것은 明治四十五年制令第二十四號에 잇서 依할것을 定한 鐵道營業法으로하고 同法第十七條中 地方長官(東京府에 잇서서는 警視總監으로함)又는 鐵道局長이라고 잇음은 朝鮮總督府鐵道局長又는 道知事로함

第二條 前條에잇서서 依할것을 定한 小運送業法第二條乃至第十條 第十二條第一項及第十四條乃至第十七條의規定은 小運送業者의 取引으로부터 發生하는 債權債務의 決濟에關한事業 又는 小運送業者가 爲行하는 貨物引換證의 整理及保證에關한 事業을 經營하는者에게 이것을適用함

附則

本令은 昭和十五年一月十五日부터 이것을施行함

本令公布前小運送業을 開始한者 又는 其承繼人으로서 本令을施行할際 現在 小運送業을經營하는者 本令施行後 五個月以內에 朝鮮總督에게 其旨의屆出을行할때에는 本令施行日부터 本令에依하여 小運送業의 免許를受한者로看做함

朝鮮總督은 前項의屆出이 잇는境遇에 잇서서 小運送業의統制上必要가 잇다고認할때에는 本令施行後 一年以內에잇서서 前項의 小運送業에對하여 免許의有効期間을 指定하고 又는 事業의 種別或은範圍를 制限할수잇음

本令公布의日 以後에 小運送業을 開始한者로서 本令을施行할際 現在 小運送業을 經營하는者 又는 其承繼人은 本令施行後五個月以內에限하여 其事業을 經營할수잇음 此期間內에 免許의申請을 行한境遇에는 免許又는 免許의 拒否된日까지 亦是同一함

本令公布前 第二條에規定한 事業을 開始한者又는 其承繼人으로서 本令을施行할際 現在其事業을 經營하는者는 本令施行後五個月以內에限하여 其事業을 經營할수잇음 [illegible] 此期間內에 免許의 申請을 行한 境遇에는 免許又는 免許의 拒否의 處分이 잇슬때까지 亦是同一함

承認價格制逆用?

所謂協定價로價格引上을策動 商人의詭計絶滅方針

物價는 價格等統制令에 依하여 九月十八日價格으로 釘付되엇는데 九月十八日現在의 價格은 地域的으로 又는 商品種類에依하여 顯著히 雜多하므로 그不合理를 是正코저 總督府에서는 便法으로서 承認價格制度를 設定하고 一定한 資格을갓춘 組合이 商品別로 協定價格을 決定하고 總督府(又는道)의 承認을어드면 이것을 九月十八日 現在價格으로 認定하고 可及的으로 價格의統一을 期하기로되어 目下各組合에서 價格의 公定價格의 承認申請이 到來하고잇는데 右組合의協定價 申請을檢討하면 大體에잇서서 一般市價보다 顯著히 割高이어서 價格의統一을 本旨로 하는 當局의 制度를 巧妙히 利用하여 價格引上을 策하려는傾向이 看取되므로 申請價格의 內容을 嚴重히 精査하여 業者側의 詭計를 絶滅할 方針을 決定하는 同時에 價格統制에 對한 業者側의 協力을 要望하고잇다한다

메리야스雜貨 協定價格申請

京城메리야스雜貨商組合에서는 最近二百二十一種類에 對하는 內地製品 메리야스雜貨類의 販賣協定價格을 決定하고 八日右協定販賣價格을 總督府當局에 申請하엿다 右協定販賣價格은 內地公定價格 又는公認查定價格에 運賃其他諸費用을 加하고 또利潤으로 一割五分乃至一割을 加算한것인바 右協定價格의 種類如左하다

一、『스파』메리야스製品冬物 三七
一、毛메리야스製品冬物
一、『스파』메리야스製品夏物 三六
一、人絹메리야스製品夏物 三六
一、洋襪及手套 三九
一、타올製品(浴布風呂敷手巾)六三
一、『스파』學生服 三二
一、『스파』毛幼兒服 三
一、『스파』毛大人向마후라等諸製品 一一
一、人絹『스파』絹其他布帛製品 四五
一、毛編製品 三
一、毛布 五
一、洋、午時別絹製品及雨傘 八

米、雜穀의輸移入

中央組合에獨占權

食糧確保를圖코저 總督府에서는 輸移入雜穀米를 統制하기爲하여 中央에中央配給組合을 結成하고 所要數量의 輸移入을 確保하기로된것은 旣報한바인데 統制方針에依하여 當局에서는 組合에對해서 雜穀米等의 移入獨占權을 주는 立場에서 右以外의類似한 輸移入組合은 이것을 不認할方針으로 決定하엿다한다

人蔘輸出增加

專賣局에잇서서의 十月中人蔘輸出數量은 六千百二斤, 價格四十八萬五千餘圓으로 本年四月以降 輸出數量累計는 一萬五百三十斤으로 前年同期에 比하여 九十斤의 增加이다

朝鮮畜產職制

朝鮮畜產會社는 創立과同時에 職制를改正하고 左의六課制를 取하기로되엇다
庶務、貿易、經理、預託、緬羊、製造化工

課長의 人選은 次次決定하기로 되엇는데 幹部及社員은 東洋畜產과 釜山、仁川外主要地의 畜產關係者 東拓의 緬羊關係者도 包含하기로되엇고 同社는 當初三分配當의 豫定인모양이라한다

國庫保證生擴資金 二億圓積極活用

產業金融上新展開를期待!

殖銀의 重要產業資金供給令은 昨八日付制令으로써 公布되어 即日實施되엇는데 이로因하여 待望의 國庫保證二億圓의 朝鮮生擴資金은 本格的으로 活用의機運에 達하여 東拓과 殖銀은 兩翼으로되어 起業金融部門에잇서서 積極的으로 國策遂行의 役割을 擔當하기로 된것으로 朝鮮의 產業金融에 對하여 劃期的인 新展開가 期待된다

一、朝鮮의 生擴資金二億圓은 議會에서 『豫算外國庫負擔』에依한 國庫保證이 決定되엇스나 今日까지 待機되어오던것인데 이로因하여 殖銀、東拓이 모두 二億圓의 資金을 本格的으로 使用하게되엇다

二、殖銀、東拓의 二億圓配定은 資金性質上으로보면 그重要性에 適當할것인데 結局兩社 各一億圓式 分割할것으로 豫想된다

三、殖銀은 從來부터 法規上으로 業務로서의 株式引受、應募를할수잇고 現在東拓이 鮮有煤炭、畜產興業等에 積極的으로하고 잇는것과가치 이에 進出하기로 될것이다

普通債券發行에無支障 殖銀兩理事談

殖銀의 重要產業資金供給에關한 銀行令은 八日公布即日實施를 보앗는데 右에 對하여 殖銀富永山口兩理事는 如左히말한다

從來當行의 社債는 拂込資本金의 十五倍까지 發行이 許可되엇 [illegible]

그리고 此等의 保證社債券發行은 當面의 金融情勢로 格別히 兩者가모두 必要치 안코나 今期中에는 試驗的으로 一部起債가 行해질것이라한다

元悳常氏의 菊花栽培

十餘年前만해도 서울안에는 洋醫가 몃어섯다 그때에 氏는 지금의安國町에 德濟病院이란 洋館을 차리고 各科를兼해 名聲도 올렷거니와 자미도 만히보앗스리라 그러나 氏의 手腕은 施術에만 그치지안코 公職者로서 不斷히 活動을 하더니 今日에 이르러서는 徹底한 轉換을하고 말엇다 지금 안진곳이 生命保險會社專務자리이니 醫業과는 다른 事業이다 그러나 堅果에屬한사람의 한典型으로 交話해노면 胡桃수처럼 고소한 味覺이잇다.

『요새 事業은어떠십니까』
『亦是 旱害의影響이 만흐데요』
『趣味는요?』
『菊花栽培입니다. 더러出品도해보앗지만 뭐…』

氏는 家庭에서도 無口한 便일게다 그러나 沈默속에 菊花의生命을엿보는 心情은 一脈이通한듯도 시프나 仁術이라고는 [illegible] 氏의 初印象이 뭇뚝뚝한은 實로香그릅다.

對英爲替暴騰

四포인드引上

八年八月以來高價

【東京電話同盟】크로스의 騰調를 反映하여 對英爲替는 九日 四포인드引上되엇다 [illegible] 昭和八年八月以來의 高價를 示現하엿스므로 一磅四포인드 [illegible] 輸出入商談은 停滯되어 大概閑散이엇다

明年度滿洲向 砂糖輸出量

【東京電話同盟】明年度滿洲國及關東州向 砂糖輸出數量에 對해서는 滿洲糖業聯合會와 日本精糖業聯合會 사이에 協議中이던바 이지음 最終的으로 大體 六十萬擔程度로 決定할것 같다 [illegible] 昭和十三年度에잇서서 [illegible] 百六十八萬圓과 照合하면 [illegible]

朝鮮商會頭에 田川氏支持

京城商議에서는 八日午後三時부터 議員懇談會, 同四時半부터 役員會, 同五時부터 議員總會를 開催하고 朝鮮商議役員選任及定款變更의 出席代表者 選定의件에 對하여 協議하엿는데 會頭問題는 議員懇談會에서 慣例를打破하고 選任하는것은 京城商議의 體面에도 關係되므로 곳까지로 決定하고 役員會及 總會에서 出席者代表는 田川會頭로하고 朝鮮商議役員問題其他全部를 出席者에게 一任하기로되엇다

滿洲重工業 以大量注文

滿洲重工業에서는 朝鮮以外의 大量注文을 [illegible] 萬枚가 가장大口이엇다 當局에서는 [illegible]

燒酒原料會社 濟州甘藷買付

燒酒原料會社에서는 濟州島産 甘藷買付에 [illegible]

日本마그네 据置

日本마그네슘工業의 下期決算總會는 오는二十五日午前十時부터 府民館에서 開催하기로된바 附議事項은 如左하며 配當은 八分配當据置로 決定되엇다

一、十四年下期營業報告, 決算書類承認, 利益金處分의件(八分配當据置)

二、定款一部變更의件

三、監査役任期滿了로 改選의件(松岡監査役)

商船、郵船間航路爭霸戰

【東京電話同盟】大阪商船의 大連航路에 日本郵船이 侵入하여 商郵協定의 一角은 崩壞되엇는데 다시最近大阪商船의 新造船竣工을 機로 日米航路에 兩社는 制霸競爭을 하고잇서 形勢가 注目되고잇다 即大阪商船은 알젠지나丸의 竣工을機로 東廻南米東海岸線을 開設한바 同航路는 羅府橫濱間에잇서서 日本郵船의 日米航路와 重複하여 商郵協定에 抵觸되므로 郵船當局의 斡旋으로 往航은 日本郵船의 獨占으로하고 復航만 [illegible]

寸鐵

▼……朝鮮小運送業令公布, 旣得權尊重으로 우선安心되나 一年內에 整理屬出될 者 [illegible]

▼……計算機關一元化는 當然, [illegible]

▼……朝鮮米公定價格은 四十一圓十錢? 正租價는 割低 [illegible]

▼……承認價格制를 逆用하여 價格引上을 策動, 不埒한 [illegible]

▼……이런業者는 [illegible]

○京春鐵道總會延期 京春鐵道에서는 來二十四日定時總會를 開催할 豫定이엇스나 形便上三十日午前十時부터 銀行集會所에서 開催키로 變更하엿다고

朝鮮株物色買

最近朝鮮內의 地場株에 對해서 內地方面이 注目을 一新하고 積極的으로 物色買를하는傾向이 表面化하여 [illegible] 今後의 動向은 매우注目된다 即株式市場의 上場問題로 地場株의 上場이 具體化되어 그有力候補로서 朝鮮石油, 朝鮮無煙炭, 北鮮製紙等이 再認識되는 同時에 有力會社인 小林鑛業, 朝鮮重要鑛業 [illegible] 이것은 堅實한 中流會社에도 波及 [illegible]

市場人感

(株)……內紛은 [illegible] 으로 保合氣分이 濃化. ▲東大案 作은 山積이나 市勢의材料로서는 無用長物 ▲新株를사고 東新을파는 常道를 나갈수박게업슬것이나 東新이 據之不動이니만치 ▲前日의 米價引上을 보고 低物價政策에도 限界가 잇다 今後의 經濟政策도 이에따라 實狀에即하여갈것이라하여 株界前途를 樂觀하는論者도 不無 ▲또다시 和平說이 떠돌아 歐洲戰亂의 前途만은 『逐鹿』하여 讀定不能 ▲紡績株式의 低迷도 當然

株式 軟調 氣迷深刻

今日의市勢 九日

前場膠着 今朝는 東新不 [illegible] 圓一, 新東八十二圓 [illegible] 後場軟調 後場은 東新七 [illegible] 不變모양이엇다

保合觀濃化

今朝外電을보면 [illegible] 保合觀은 [illegible]

現物도閑散

今朝는 現物方面도 [illegible]

朝陽鑛業株分讓

日本高周波의 朝陽鑛業株式所有九萬株中 一萬株를 今回東京 大阪, 名古屋, 京城의 有力株式店에 分讓하여 [illegible]

郵運得證券取引店
京城府 黃金町

今日現株市勢(正午調)

◇朝鮮內株式

銘柄	價	銘柄	價
鮮銀新	[illegible]	朝銀	[illegible]
殖銀新	[illegible]	京春鐵	[illegible]
朝鐵	[illegible]	同四新	[illegible]
金剛電	[illegible]	同新	[illegible]
京春鐵	[illegible]	漢水電	[illegible]
京電新	[illegible]	西電	[illegible]
南電	[illegible]	中央無盡	[illegible]
國產自	[illegible]	製鍊	[illegible]
無煙炭	[illegible]	小林新	[illegible]
金組鑛	[illegible]	三陟開	[illegible]
막네新	[illegible]	朝紡新	[illegible]
朝石	[illegible]	同新	[illegible]
東拓新	[illegible]	弘中新	[illegible]

◇內地株式

銘柄	價	銘柄	價
鐘實	[illegible]	帝人新	[illegible]
日曹필	[illegible]	日曹新	[illegible]
九曹新	[illegible]	日石	[illegible]
日鑛新	[illegible]	三菱新	[illegible]
日曹鑛	[illegible]	帝產新	[illegible]

◇滿支株式

銘柄	價	銘柄	價
滿鐵	[illegible]	東邦잘	[illegible]

株式

◆今日財界九日

◆米 ◆雜穀 ◆棉花 ◆生絲 ◆東京國債 ◆朝取短期 ◆東京短期 ◆東京現株 ◆大阪短期 ◆大阪長期 ◆大阪短期取組 ◆東定代引日步取組 ◆朝取短期取組

[illegible]

海外經濟 八日

[illegible]

◆銀行券 八日◆ ◆金利 ◆手形交換 ◆鰯油粕麥粉 ◆金銀價 ◆對外爲替 ◆京城正米 ◆仁川正米 ◆正租 ◆京城雜穀 ◆仁川雜穀 ◆京城綿絲布市勢 ◆滿洲商況

[illegible]

三國志 韓龍雲譯 熊超畫 【8】

桃園結義와黃巾亂(八)

손견이 그러한 소식을 듣고 군마를 재촉하여 양성을 치니 도적의 형세가 위급한지라 도적이 장수 엄정(嚴政)이 장보를 죽이고 항복하거늘 수준이 이 두어고을 평정하고 표를 올려 이긴사연을 아뢰었다.

때에 황건적의 남은무리 조홍, 한충, 손중(趙弘、韓忠、孫仲)들이 무리 수만을 거느리고 바람을 따라서 불지르며 장각을 위하여 원수를 갚는다 일커르매 조서하고 조준을 명하여 치게하니 수준이 조서를 받들고 거느린 군사로 고와서 완성에 웅거한 도적을 치니 조홍이 한충을보내어 싸우거늘 수준이 현덕과 관장으로 하여금 서남쪽을 친데 한충이 정병으로 서남쪽을 막는지라 수준이 스스로 철기(鐵騎)를 거느리고 동북쪽을 [illegible]

로서 싸움시니 만일에 한마음이 되어도 당할수가 업거든 허물며 성중에 수만의적 개된 사람이 잇스미리오 동남을 바리고 서북만을 치면 도적이 반드시 성을버리고 다라나서 자연 싸움마음이 업슬것이니 그때에 사로잡는것이 올다」

한데 주준이 그말을 올히여겨 동남의 군사를 거두고 일제히 서북을 치니 한충이 과연 성을 바리고 다라나는지라 주준이 현덕과 관, 장으로 더부터 엄살하여 한충을 쏘아죽이니 나머지 무리는 다라나는지라 정히 쫓질새 조홍과 손중이 무리를 이끌고 달려드는지라 주준이 조홍의 형세가 큰것을보고 잠깐 물러나니 조홍이 다시 완성을 빼앗는지라 주준이 십리를 물러가 진을치고 바야흐로 성을 치고자할새 홀연히 보니 동쪽

취하니 적이 성을 일흘까 두려하여 급히 서남쪽을 바리고 돌아오거늘 현덕이 뒤를쫓차 엄살하니 도적이 크게패하여 완성으로 돌어가거늘 수준이 사면으로 성을 에우고 양식을 끈흐니 하루는 사람으로 하여금 항복을 청하거늘 주준이 듯지아니하는지라 현덕이 말하되

「옛적에 고조가 천하를 어든것이 대개 항복하는자를 용납함이어늘 어찌 하층의 항복을 막느냐」

하니 수준이 말하되

「이것도 하때요 그것도 하때라 그때에는 천하가 크게 어지러워 백성이 경한 임금이 업스매 항복하는자를 용납하고 오는자를 상주어서 부따라오게 권하였거니와 이제는 천하가 통일되어 잇는데 오직 황건적이 반역하니 만일 그항복을 용납하면 착한것을 권할수가 업고 도적으로 하여금 이로우면 노략질하고 해로우면 항복하게 하여 이는 도적의 마음을 조장하는 것이오 조흔꾀가 아니다」

「그러면 도적의 항복을 용납하지 안는것은 올흐나 이제사면을 철통가치 에우고 항복도 듯지아니하면 반드시 죽기

으로부터 하떼인마가오는데 위수대장은 오군부춘(吳郡富春)사람 손견(孫堅)이 자는 문대(文臺)니 손무자(孫武子)의 후손으로 생기기는 이마가 넓고 얼굴이 크며 범의몸과 곰의허리엇다.

손견이 열일곱살에 아버지로 더부터 전당(錢塘)에 갓는데 마참 해적 십여인이 장사하는 사람의 재물을 겁탈하여 언덕위에서 나누는 것을 보지다 손견이 아버지께 말하여 도적을 잡자하고 칼을들고 언덕에 올라서 소리를노파 크게 부르짓고 동남을 가리치며 사람을 부르는 시늉을하니 도적이 판병이오는줄로 알고 재물을 바리고 다라나는지라 손견이 쪼차가서 한사람을 죽이니 이로 말미암아 고을에서 이름을 알게되어 천거하여 교위가 되엇고 뒤에 회계(會稽)의 요망한도적 허창(許昌)이 반하여 스스로 양명황제(陽明皇帝)라 일컷고 무리수만을 모은지라 손견이 군사마(郡司馬)로 더부터 용사천여인을모아 처서파하고 허창과 그아들 허소(許韶)를 베이니 자사장민(臧旻)이 표를올려 그공을아뢰매 손견으로 염독승(鹽瀆丞)을 삼고 또 우이승(盱眙丞)과 하비승(下邳丞)을 삼엇다.